

45 귀하게 쓰임 받은 사무엘

Chapter

삼상 3, 12장

찬송가 372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 186장 (나 주의 기쁨 되기 원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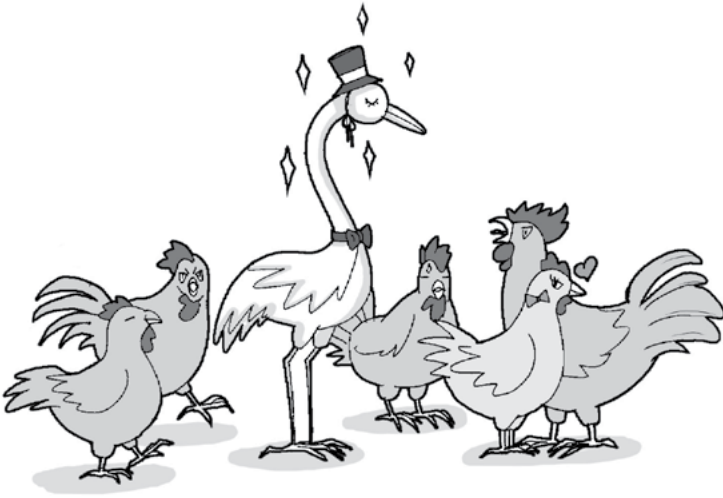
오늘 배울



말씀

1. 사무엘의 일평생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음을 압니다.
2. 어릴 때부터 구원받아 교회 안에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자 축복임을 압니다.

마음 열기



위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사자성어와 그 뜻을 써보세요.



말씀을 이해하기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연 인물입니다. 그가 태어난 당시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으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백성은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 백성은 물론이고 레위인과 심지어 제사장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타락하였으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해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와 서원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사무엘은 나면서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에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성막에서 여호와의 섬김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당시 어린 사무엘 주위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불러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집에 대한 저주를 선포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말씀을 선포했으며,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하셔서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으로부터 아무것도 부당하게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 부름을 받아 노년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었습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딤후 2:20~21)

But in a great house there are not only vessels of gold and silver, but also of wood and clay, some for honor and some for dishonor. Therefore if anyone cleanses himself from the latter, he will be a vessel for honor, sanctified and useful for the Master, prepared for every good work. (2 Ti 2:20~21)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삼상 1:26~28)

(삼상 12:1~4)

(삼상 12:22~24)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사무엘상 3장 1~15절을 읽어보세요.

1.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요?
2.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사람이 부른 것으로 사무엘이 착각한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세요.
3.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엘리의 죄와 그 집에 대한 저주의 선포였습니다. 이 일은 사무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니까?
4.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엘리나 그의 아들들이 아닌, 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무엘상 2장 30~35절을 읽고 요약해 봅시다.
5. 나도 사무엘처럼 어린 때부터 나이 많은 노년까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자라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일군이 되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들의 이야기

만물을 지으신 이

시계가 있다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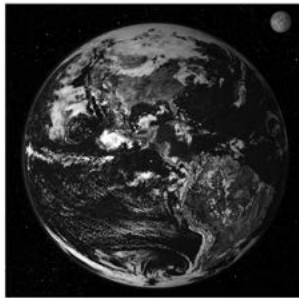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집이 있다는 것은



강아지 집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만물을 만드신 분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성경 안에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히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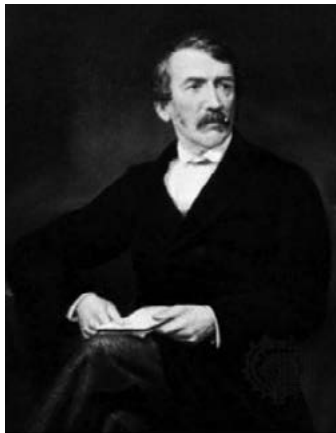
하나님께 나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한 시골에서 아프리카인을 위한 선교와 의료사업을 위해 헌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헌금을 담는 그릇은 우리의 주머니 모양과는 달리 조금 작기는 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사용하는 세숫대야처럼 생긴 것이어서 헌금을 넣으면 다 보이기 마련입니다. 헌금 그릇이 쪽 돌아가면서 헌금을 담던 도중인 소년 앞에 이르자 이 소년이 대뜸 그 그릇 위에 올라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무슨 것이냐?”며 소년을 꾸짖자 그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 대신 하나님께 저의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소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방직공장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혼자 힘으로 그리스어와 의학, 신학을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의 인정을 받아 1840년 12월 아프리카로 출발합니다. 13주간 항해를 하는 동안 아프리카 부족의 언어를 공부하였고, 이듬해 3월부터 아프리카 내륙 탐험과 복음 전파에 매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상상할 수 없는 더위와 영양부족, 질병과 열악한 환경, 사자와의 싸움, 아프리카 부족들의 공격 등을 겪으면서 선교사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수천의 마을들을 방문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873년 5월, 현재 잠비아에 해당하는 일랄라 지역 치탐보에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프리카 하인이 그를 찾아냈을 때, 그는 침대 곁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무릎을 꿇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인들은 그의 시체를 썩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 그의 심장과 내장을 제거하여 아프리카 땅에 묻고 시신은 9개월의 힘든 여정을 거쳐 영국으로 옮겼습니다. 그의 장례는 온 국민이 애도하는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선교사이자 탐험가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이야기입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